

코로나19 대응: 중국 정부의 노동유연화 확대 방침과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중국

박석진 (중국 칭화대학교 역사학 박사과정)

■ 머리말

코로나19가 전 세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상당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던 2020년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6.8%로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다.¹⁾ 이에 따라 2020년 4월 전국 도시지역 조사실업률도 6.0%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2월의 5.2%보다 0.8% 상승했다.²⁾ 이 수치에 근거해 조사실업률 6.0%에 상당하는 실업자 규모를 약 2천 7백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³⁾ 중국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실업률 수치에 반박하며 실제 실업률은 약 20.5% 정도이고 최근 7천만 명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직원공유(共享員工)’를 시도했다.⁵⁾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식업과 숙박업 등의 서비스업이 급속하게 침

1) 經濟網(2020.4.17), 「-6.8%! 中國GDP首次單季負增長 網友評論炸了」, <http://www.ceweekly.cn/2020/0417/294154.shtml>(최종검색일: 2020.11.30).

2) 國家統計局(2020.5.15), 「國家統計局新聞發言人就2020年4月份國民經濟運行情況答記者問」, http://www.stats.gov.cn/tjsj/sjjd/202005/t20200515_1745719.html(최종검색일: 2020.11.30).

3) 박석진(2020),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실업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18(6), 한국노동연구원.

4) 新浪財經(2020.4.26), 「中國實際失業率有多高?」, <https://finance.sina.com.cn/stock/relnews/us/2020-04-26/doc-iircuyvh9843233.shtml>(최종검색일: 2020.11.30).

5) 人民網(2020.2.13), 「記者觀察: “共享員工”抱團戰“疫”一箭幾“雕”?」, <http://society.people.com.cn/n1/2020/0213/c1008-31585232.html>(최종검색일: 2020.11.30).

체되면서 많은 노동자가 휴직·실업 등의 상태에 처한 반면, 온라인 판매업과 유통업 등의 업종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인력이 대거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두 업종의 기업들이 협의해서 일시적 휴직 상태에 있던 직원들을 인력이 필요한 업종으로 ‘공유’해 노동시장 쌍방의 압력을 감소시켰다. 또 온라인 판매업과 유통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중국의 대표적 음식배달 플랫폼 중 하나인 메이똤(美團)에서만 2020년 상반기 배달노동자가 전년대비 16.4% 증가한 295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⁶⁾ 그리고 2020년 여름에 졸업한 대졸자의 취업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2020년 대졸자 수는 사상 최대치인 874만여 명을 기록했는데, 2월~6월 사이 민영기업이 발표한 고용인원은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했고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전년동기대비 36.0%나 감소했다. 그리고 국유기업의 고용이 20.0%나 하락하여 그나마 5월 이후에는 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구직자들은 취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⁷⁾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 집단에 상대적으로 훨씬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⁸⁾ 중국은 여성노동자의 70% 정도가 숙박업, 요식업, 도소매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이다. 이 업종에 종사하던 많은 여성노동자가 실업과 일자리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임금소득도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성이 집중된 업종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도 더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 중국 정부의 노동유연화 확대 방침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해 중국 국무원은 2020년 7월 31일 ‘유연한 취업(靈活就業) 다각화를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⁹⁾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인력을 줄인 반

6) 鈦媒體(2020.7.20), 「美團發布《2020上半年騎手就業報告》:半數旗手收入4000元以上」, <https://www.tmtpost.com/nictation/4557637.html>(최종검색일: 2020.11.30).

7) 中文互聯網數據資訊網(2020.08.16), 「智聯招聘:就業困難大學生群體研究報告」, <http://www.199it.com/archives/1101548.html>(최종검색일: 2020.11.30).

8) 澎湃(2020.10.19), 「疫情下女性就業情況變得更糟糕了嗎?」,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584732(최종검색일: 2020.11.30).

9)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2020.7.28), 「國務院辦公廳關於支持多渠道靈活就業的意見」, http://www.gov.cn/jijinhua/2020/07/28/content_5521171.htm.

면 많은 대졸 구직자와 농민공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 집단까지 노동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이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유연한 취업의 다각화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유연한 취업’이란 시간제, 임시직, 탄력근로 등과 같이 노동유연성이 높은 취업형태를 의미하는데, 플랫폼 배달노동자, 프리랜서 작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던 2020년 4월부터 ‘6개 안정(六穩,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시장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취업, 기초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안보, 산업·공급사슬 안정, 기층운영 임무 보장)’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¹⁰⁾ 이러한 목표를 통해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취업안정을 가장 강조했다. 취업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고, ‘6개 안정’과 ‘6개 보장’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7월 국무부에서 발표한 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견은 자영업·시간제 및 새로운 취업형태와 같은 유연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새로운 취업 경로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취업안정을 위해 창업과 적극적인 구직을 장려하고 유연한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폐지를 주문했다. 의견은 크게 네 가지 방향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유연한 취업의 발전 경로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 장려 △시간제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새로운 취업형태 개발 지원 등과 같다. 우선 자영업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자가 소규모 투자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구조 전환이 쉬운 소규모 사업체를 창업하도록 유도하며 특색 있는 상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업자와 대학졸업자, 농민공, 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주요 취업 집단에는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창업담보대출, 세금 우대, 창업 보조금 등과 같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노동자가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청소업 및 녹화사업, 도소매업, 건축인테리어업 등과 같은 업종의 규모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 보육, 심리상담, 사회복지 등과 같은 마을 복지서비스 사업의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준비생과 졸업한

www.gov.cn/zhengce/content/2020-07/31/content_5531613.htm(최종검색일: 2020.11.30).

10) 中央廣播電視總台中央視網(2020.4.23), 「做好“六穩”工作落實“六保”任務」, <http://news.cctv.com/2020/04/23/ARTIIXcdvq5QWuYoVqiisCYp200423.shtml>(최종검색일: 2020.11.30).

지 2년 이내인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미취업 대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보조금 지급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새로운 취업형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플랫폼,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재택근무, 투잡(two jobs) 등을 위한 조건을 최적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과 서비스 중개업체 등이 서비스 비용과 가맹비용 등을 낮춰 더 많은 유연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창업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창업 심사관리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했다. 모종의 업종에 진입해 창업하려고 할 때 원스톱 심사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녹색 창구’를 개설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농부산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대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영업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한 유연한 취업과 관련된 행정 수수료를 폐지하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 도시 도로 점유비용도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개적인 신고시스템을 마련해 규정을 어기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감시하도록 했다. 장소 제공과 관련해서 국유 부동산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고, 업주에게 부동산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장려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종합서비스 시설의 유휴공간과 여유 사무공간을 무료공간으로 개조해 주요 취업 그룹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셋째, 유연한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관련 사업과 새로운 직종 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해 직업분류 등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직종에 대한 표준을 제때 제정하고 훈련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통계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해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 지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과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하도록 했다. 유연고용 종사자 중 창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개업 준비, 시장 분석, 경영 전략 등과 같은 훈련을 진행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도록 했다. 그리고 노인복지, 보육, 가사서비스, 요식업, 미용업 등과 같은 업종의 직업훈련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보조금 지원과 훈련기간 생활보조금 지원 등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직업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적자원 서비스도 최적화하도록 했다.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정보를 공공서비스로 포함시켜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고 각종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이 유연고용 종사자에게 무료로 전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했다. ‘직원공유’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도시의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집중된 곳에 인력시장을 운영하도록 장려했다. 더불어 노동권의 보장 정책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기업과 관련 업체, 노동자가 협상에 참여해 임금과 휴가 제도, 작업장 안전보장 등에 대해 함께 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산업노조 혹은 지역노조와 업종협회 혹은 업종기업 대표가 협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근로시간, 보상 및 처벌방법 등과 같은 산업의 공동 규범을 제정하도록 했다. 임금체불 등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규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했고, 건설 및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농민공들이 작업에 따라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재예방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생계가 곤란한 유연고용 종사자가 올해 연금보험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최저생활보장 및 임시구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생활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취업 현황

2020년 7월 메이탄연구원은 중국에서 생활서비스업의 새로운 취업형태와 유연한 취업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고용업체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보면 유연한 취업의 현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¹¹⁾ 유연한 취업은 요리사, 미용사, 헬스 트레이너, 온라인 교사 등 서비스업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생활서비스업의 유연고용 종사자들의 성비는 여성 48.8%, 남성 51.2%로 남성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은 20~35세가 82.2%로 가장 많았는데 26~30세가 33.5%, 31~35세가 28.7%, 20~25세가 20.0%를 차지했다. 유연고용 종사자 중 29.1%는 한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시간제나 임시직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었으며, 28.4%는 안정된 직업이 있음

11) 中國經濟時報(2020.9.15), 「生活服務業新就業型態和靈活就業的發展特徵和發展趨勢」, http://jjsb.cet.com.cn/show_515595.html(최종검색일: 2020.11.30).

에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이나 플랫폼 모빌리티 운전 등이 있었다. 그리고 25.3%는 작곡가, 자유기고가, 디자이너 등과 같은 프리랜서들이었다. 메이탄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배달노동자 고용 보고」를 보면¹²⁾ 메이탄 소속 배달노동자 중 약 40%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고, 36.2%는 배달에 종사하는 노동시간이 총 노동시간의 50% 이하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16.8%는 월수입이 3천 위안(한화 약 50만 원) 이하였고, 40.4%는 월수입이 3천~5천 위안(약 50~84만 원), 23.3%는 5천~7천 위안(약 84~118만 원), 9.9%는 7천~1만 위안(약 118~168만 원), 그리고 9.6%는 1만 위안 이상이었다. 전체적으로 생활서비스업의 유연고용 종사자의 월평균 수입은 5,061.6위안(약 85만 원)이었고 평균 연봉은 6만 732위안(약 1,011만 원)이었다.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도시지역 민영기업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5만 3,604위안(약 902만 원)이었는데, 생활서비스업 유연고용 종사자들의 소득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56.8%가 '이후에도 계속 유연고용에 종사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이 중 20.0%는 '자영업 창업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5.3%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10.6%는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6.9%는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진학이나 직업훈련을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측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생활서비스 업체 중 55.2%는 유연고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48.5%는 필요한 유연고용의 비중이 10% 이하였고 17.8%는 11~20%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 중국의 생활서비스업에서 필요한 유연고용의 비중은 대략 12.8% 정도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활서비스업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유연고용의 형태로 취업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생활서비스업 중 교통 및 관광업, 요식업 및 문화·체육·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유연고용에 대한 요구는 각각 63.3%, 57.1%, 57.1%로 생활서비스업 평균보다 현격히 높았다. 이러한 생활서비스 업체가 유연고용을 필요로 하는 원인으로서는 55.6%의 업체가 '전염병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고, 39.4%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29.4%는 '인력 수요가 계

12) 網經社(2020.7.20), 「每團研究院:《2020上半年騎手就業報告》」, <http://www.100ec.cn/detail-6564087.html>(최종검색일: 2020.11.30).

절성·주기성·시기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계획에 대해 업체의 41.0%는 유연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고, 30.5%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8.4%는 정규직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메이탄연구원은 음식배달업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이 산업은 '3대 신경제'의 대표적 산업 중 하나가 되어 많은 배달노동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음식배달업이 코로나19 기간의 일시적 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고용 저수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가 유연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장꾸이원(張桂文) 외(2020)에 따르면 경제 성장과 취업의 관계에 근거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0년 중국의 신규 취업 손실을 추산하면, 낙관적인 전망치로는 142만 1,600명(8.70%)이 감소하고, 중립적인 전망치로는 477만 9,200명(29.26%)이 감소하며, 비관적인 전망치로는 678만 6,100명(41.55%)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유형별로는 3차 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2019년 중국의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9%로 매우 높고 고용탄력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취업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¹³⁾

코로나19가 유연고용 종사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모롱(莫榮) 외(2020)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¹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했으므로 노동자들도 유연한 취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67%의 구직자가 시간제 일자리와 배달노동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월의 조사보다 40%가 늘어난 수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많은 기업이 파견노동, 기간제, 외주 등을 확대하면서 유연한 취업은 취업안정화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코로나19는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중

13) 张桂文, 吴桐:「新冠肺炎疫情对中国就业的影响研究」,『中国人口科学』2020年03期.

14) 莫荣, 李付俊:「新冠疫情对灵活就业人员的影响分析」,『新金融』2020年09期.

국 경제가 차츰 정상화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일과 소득도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 경제와 맞물려 중국 경제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고, 그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으로 대량의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소득은 감소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연한 노동은 더욱 불안정해져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할 수도 있다는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위협에 가장 먼저 노출됐던 노동자 집단도 파견노동과 외주업체에 종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농민공도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초기 자가격리와 전반적인 경제활동 중단으로 2차 산업에 종사하던 농민공이 한때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이 많기 때문이다. 「201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보고」를 보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비중이 51%에 달한다. 특히 빈곤지역 출신의 농민공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생산 부진으로 취업 기회가 줄어 지난 4월 이후 많은 수의 실직한 농민공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꾸이원 외(2020)의 연구에서도 취업집단별로 봤을 때 농민공과 대졸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민공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체에 고용된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사업체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 게다가 농민공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인적자본이 부족한 데다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 역시 높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 농민공들이 일반 도시 거주민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구조고도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식과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농민공의 취업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맺음말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고용·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유연한 취업을 확대해 일자리와 취업 기회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급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연고용 종사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이 유연고용을 더 늘릴 것이라 밝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것이 마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유연고용 종사자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언제라도 소득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는 농민공과 여성이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연한 취업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기업과 정부의 유연한 노동은 노동자에게는 불안정한 노동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는 유연한 노동의 확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시기의 비상조치가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이때,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한 노동과 취업의 확대가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